

현대 소설에 나타난 술의 의미

1. 들어가는 말



한 승 옥
〈숭실대 국문과 교수〉

문학인들이 술을 즐겨 하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문학은 호방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현실의 규제나 한계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가는 것이 그 속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일탈을 꿈꾸게 하며, 과감하게 현실의 사물을 풀어버리게 만든다. 디오니소스의 후예답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태초의 카오스를 경험하면서도 그를 통해 창조의 힘을 발휘한다.

문학에 나타나는 술의 의미는 크게 시와 소설로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낭만적인 경향이 강하여 호방하거나 정열적인데 반하여, 소설에서는 그 장르의 속성 상 현실에 뿌리내린 민초들의 삶의 애환이나 타락의 한 증표, 혹은 삶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특히 작품상에서 술이 의미하는 바가 큰 것들 몇 편을 골라 언급해 보기로 한다.

2. 이광수의 [무정]

-민족과 가족사의 비극-

이광수는 현대문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소설가이다. 그는 1892년에 태어나 세계 역사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이광수의 「무정」
3.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
4. 염상섭의 「삼대」
5.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
6. 맺음말

상 유래가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 중 납북되어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사람이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의 대명사가 붙어 다닌다. 현대문학의 선구자, 조선의 4대 천재, 독립운동가 등으로 불리는가 하면, 친일파, 위선자로 매도되기도 한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민족과 함께 영욕을 함께 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무정]은 그의 최초의 장편소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사에서조차 최초의 현대소설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좋게 평가를 받는 것은 과거의 잔재를 떨쳐 버리고 새로운 기법으로 창작하였으며, 그 내용에서도 당대의 시대정신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주인공 박영채는 이 소설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는데, 그녀의 일생은 당대 식민지 현실의 한 상징으로 형상화되었다 해고 과언은 아닐 정도로 한일합병과 더불어 당대의 우리 민족사의 몰락사와 궤를 같이 한다. 영채의 아버지 박진사는 유학을 한 선비로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을 때,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후학을 가르치다가 학교 운영자금이 떨어져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보다못한 제자 중 한사람이 도둑질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그에 연루되어 감옥에서 옥사하는 비극적 인물이다.

영채의 비극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영채는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구하려고 고소설에 나오는 대로 기적에 몸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아버지 구명운동을 하나, 오히려 기생이 된 것을 알게된 아버지가 자결을 하고, 오빠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음으로 하여 일시에 집안은 패가하고 만다.

[무정]에는 직접적으로 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거나 그것이 클로즈업되지는 않는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영채가 기생이 되고

기생이 살고 있는 집이 등장하거나 한다.

기생은 술을 매개로 하여 존재하였던 인물이다.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남자들이 사회의 공공연한 묵인 하에 여자들을 노리개로 농락하던 곳이다. [무정]에서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채는 기적에 몸을 팔았으면 서도 이형식을 만나기 위해 굳건히 정조를 지켰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굳건한 의지도 배학감(남주인공 이형식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감)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배학감이 영채가 정절이 굳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청량사로 유인하여 정조를 강제로 유린해 버렸기 때문이다.

영채는 정조가 유린된 후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영채가 기생이 된 후 굳게 정조를 지켜 온 것도 형식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에서였다. 형식과 결혼하는 것만이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꿈이었다. 이러던 차 배학감에게 정조가 유린당하니 모든 꿈은 사라지고, 영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게 되었다. 영채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다. 결국 영채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을 결심을 하고 평양으로 향한다. 대동강에 몸을 던질 생각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광수는 영채를 극적으로 살려낸다. 병욱이 극적으로 그녀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동강 물에 빠지려는 그를 극적으로 건져 올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차에서 우연한 만남과 설득에 의해서다.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서 영채는 병욱을 만나게 되는데, 병욱은 동경 여자 유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귀가하는 길이었다. 병욱은 우연히 영채를 기차 안에서 만나 그녀의 사정 이야기를 듣는다. 정조를 잃고 그 때문에 평양으로 자살하러 감을 알게 된 것이다. 병욱은 영채에게 정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누누이 역설한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목숨 보

다 소중하지 않다는 깨우침이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영채는 자살할 결심을 버리고, 병욕을 따라 그녀의 집으로 간다. 그후 영채는 그녀의 도움으로 동경 유학의 부푼 여정에 오른다.

이 작품에서 술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영채의 정조가 유린되게 하여 자살을 결심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배학감이 영채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도 술을 매개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광수는 계몽주의자였다. 그는 술 먹는 사람들은 타락자이거나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방일자로 취급하였다. 이런 생각은 그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사랑]에서도 석순옥을 괴롭히는 허영을 술만 먹는 방탕한 사람으로 형상화한 바 있다. 그의 작품에서 대부분 돈이 있는 지주나 갑부는 술을 즐기고 유락에 빠져 타락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모두 개화기 지식인이었던 이광수의 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난 결과다.

3.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

-식민지 현실과 지식인의 비애-

현진건에 있어 술은 현실의 괴로움을 이겨 나가는 스트레스 해소의 한 수단이었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의 술이 좌절과 절망과 울분을 풀기 위한 한 수단이었다면,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운수 좋은 날]에서의 술은 한 노동자의 삶의 고달픔을 풀기 위한 위로의 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우리의 일상사와 매우 가까운 친근한 이미지의 술을 작품에서 만나게 된다. 여기서는 [술 권하는 사회]를 중심으로 언급해 보기로 한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 아내는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 남편은

동경 유학을 하고 금의환향한 지식인으로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면 돈을 많이 벌어들여주고 호강시켜 줄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돌아온 남편은 돈은커녕 집에 틀어 박혀 이상한 책만을 읽고 있거나 때로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멀거니 천장만 쳐다보고 앉아 있거나 할뿐이다. 도대체 아내가 기대했던 대로 호의호식은 커녕 백수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아니 백수이기보다는 무언가 사람도 만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돌아오거나 인사불성이 되어 돌아오기 일쑤다.

아내는 이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 소설에서는 아내를 일부러 무식한 여자로 설정하였다. 아마도 이런 아내는 1920년대의 유학생 남편을 둔 일반적인 아내 상이다. 남편은 동경에서 신학문을 하는데, 아내는 양가집 규수로 규방에만 갇혀 바느질이나 하는 조강지처형이다. 이 작품에서도 남편은 아내와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더욱 당대의 식민지 현실을 고뇌하는 지식 청년들의 전형울 효과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여기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변을 들어보기로 하자.

“허허, 기막혀. 그 한 분자(分子)된 이상에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 권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가 보아.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무어라 할까... 저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요... 어째 그렇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놈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

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니 아니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 되어, 단 이틀이 못되어…”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 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會)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적이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술에 만취가 되어 집에 돌아와 마루에 쓸어져 아내에게 내뱉는 절규다. 그러나 아내는 무식하여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내가 마지막에 근심어린 투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이 작품의 백미에 해당한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현진건은 당대 지식인들이 처한 고뇌와 더불어 조선 사람들의 명예욕과 분파심을 무식한 아내의 시선을 통해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독립운동에 매진해도 시원찮은데, 사리사욕에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이 현실은 지금도 변함없다. IMF를 맞은 우리 현실에 위정자나 경제관료나 기업가들은 사리사욕과 분파에만 정신이 팔려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기 배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아니 그런 한심한 작태를 보고 술에 취해 울분을 토하는 죄 없이 선량하기만 한 민초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 봐야 할 일이다.

4. 염상섭의 [삼대]

-타락과 매매춘의 매개물,
또는 독립운동의 한 수단-

염상섭은 문인 중에서도 가장 술을 즐겨했던 문인이다. 그는 호부타가 횡보다. 횡보(橫步)는 옆으로 게걸음을 걷는 것을 형상한 말이다. 술이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그것은 바로 횡보가 일제시대를 견뎌내는 모습이었다. 식민지 치하에서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어찌 취하지 않고 암담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으랴 하는 의미가 내포된 호이기도 하다.

[삼대]는 그의 대표작이기도 하거니와 한국문학사 상에서도 고전으로 그 자리를 굳힌 명작이다. [삼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의 어려운 상황을 전형적인 인물을 통해 횡과 종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형상화하였기 때문이다. [삼대]에서는 제목이 그러하듯 삼대를 통해 가족사를 이야기한다. 할아버지 세대 조의관, 아버지 세대 조상훈, 아들 세대 조덕기가 그것이다. 이것이 종축이다. 염상섭은 이를 통해 가족사가 지니고 있는 허상과 위선, 세대간의 갈등과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종축이다. 그러나 [삼대]가 가족사만을 오로지 다루었다면 반쪽짜리 작품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횡축을 이루는 병화와 필순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

병화는 아들 세대 덕기의 절친한 친구로, 덕기가 브르조아라면 병화는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한다. 30년대 현실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횡보는 가족사적 종축을 중심으로 가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동시에 횡축으로 병화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당대 현실을 밑바닥까지 파헤쳐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이다.

[삼대]에서 술은 이러한 흥보의 가치관 제시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작품의 서두부터 덕기와 병화가 만나는 곳이 흥경애가 여급으로 나가는 바커스라는 술집이었다. 흥경애는 이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아버지 조상훈의 첩인 동시에 아들 덕기와는 동창생이다. 아들 친구를 첩으로 들인 셈이다. 조상훈이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친구의 딸 흥경애를 돌봐 주다가 첩으로 삼은 것이다.

경애가 술집에 나오게 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두 가지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생활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립운동의 아지트를 만들기 위하여서이다. 생활의 문제는 물론 경제적인 문제로, 조상훈과 사이가 나빠졌을 뿐 아니라 조상훈도 이제는 그녀를 돌봐 주는데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그녀를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밝혀지는 일이지만 흥경애는 이미 독립운동 조직과 연계되어 그 일원으로 국내에서 연락책을 맡고 있었다. 바커스는 이러한 독립운동의 연락책이 서로 접근하기 쉬웠을 뿐 아니라 술집이 지금의 명동 한복판에 있었기에 일본 거물급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다.

이 술집에서 흥경애는 세 남자를 만난다. 덕기와 병화, 그리고 덕기의 아버지 조상훈이다. 흥경애는 술집에 나오기 전에는 조상훈이 설립자 대표로 있는 학교의 여선생이었다. 독립운동가의 딸로 곤궁에 처하였던 경애가 여학교를 졸업하자 조상훈이 학교에 취직을 시켜 준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상훈의 의도는 순수했다. 그러나 이런 은인과 친구의 딸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져 아이까지 갖게 되고, 동경으로 경애를 도피시켰다가 아예 서울로 은밀히 불러들여 첩살림을 꾸이게 된 것이다. 경애는 그 후 조상훈이 돌보지 않게 되자 술집으

로 나왔게 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조상훈과 경애가 사석에서 처음 만나 은밀히 밀회를 시작할 때 상훈이 경애를 유혹하기 위해 먹인 술이 맥주라는 점이다. 당시로서는 맥주가 고급술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같으면 무슨 술로 여자를 유혹하였을까 흥미롭기까지 하다.

경애는 이때까지만 해도 순진했기에 술 같은 것을 입에 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인물이다. 또한 상훈도 교계에서 명망 있는 인사이기에 경애는 그가 술을 입에 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요리를 시키고 서슴지 않고 술을 시켜 먹고 또한 자기에게도 술을 권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훈은 순진한 경애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이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애를 요릿집으로 데려가고 술을 먹인 것은 유혹의 한 수단이었다. 이제 경애에게도 마수가 뻗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 친구이며 독립운동가의 딸이기도 한 경애를 첩으로 삼을 정도로 속물 중에 속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술집 바커스에 나온 경애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 여인이 되어 있었다. 이 술집에서 그녀는 한 때 존경했던, 아버지 친구이기도 했고 학교의 설립자이며 교계의 명망 있는 독지가이기도 했던 자신의 과거 정부 상훈을 만나 마음껏 능멸한다. 이 술집에서 상훈은 다른 술꾼들에게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상훈이 속물이 되어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흥경애는 아버지 뿐 아니라 덕기도 어린아이 취급하듯 조롱한다. 흥경애는 이 술집을 통해 부자를 모욕하고 능멸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브르조아 가계가 타락해 가는 과정 속에서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망신을 당하는 통쾌한 장면이기도 하다. 흥경애와 병화는 이후 한 짝

이 되어 산해진이란 반찬가게를 하며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삼대]에 나오는 인물로 빠트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다. 매당집이 그것이다. 매당집이란 일종의 매춘 조직으로 부잣집 남자들에게 첩으로 여인을 공급하던 인물이다. 덕기의 할아버지 조의관의 후실인 수원집도 이 매당집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상훈의 첩인 김의경도 매당집에 의해 소개된 여인들이다. 그러니까 매당집은 은밀히 여인을 공급해 주는 뚜쟁이인데다가 술을 파는 일종의 매춘 조직이기도 하다. 다른 여타 문인의 소설에서는 이런 매당집이 나오지 않는다. 매당집을 소설에 등장시킬 수 있으려면 서울 중산층의 삶을 깊이 알아야 하고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염상섭은 서울의 중류계층에 속해 있었고, 또한 그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던 인물답게 이러한 은밀한 곳까지 소설에 등장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염상섭은 [삼대]를 더욱 깊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삼대]에서 술은 타락한 인물이 또 다른 하나의 여인을 타락시키는 매개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의 아지트로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매당집을 등장시켜 서울 중산층 삶의 은밀하고 깊은 곳까지 파헤치는 치열함을 보여주었다. 염상섭은 리얼리즘의 진면목을 여지없이 묘파했다는 점에서 현대문학사에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작가라 하겠다.

5.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

-반윤리를 통한 윤리의 실현-

김유정은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 유니크한 특색을 지닌 작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작

품 활동을 한 햇수는 아주 짧지만 그가 남긴 주옥같은 단편은 우리 문학사에서 값진 보석으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해학이 어우러진 문체와 삶의 아니러니는 소설을 읽는 이로 하여금 정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그는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반윤리를 서슴없이 결행한다. 삶의 방식이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윤리에 어긋나면 도덕적 슈퍼에고가 이를 저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도덕률이다. 그러나 김유정 작품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가 아닌 그 보다도 더 하급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삶을, 아니 최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반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부각된다. [소나기]에서는 돈을 벌어 오라고 춘호가 아내를 동리 이주사에게 매춘하러 보내는 것이나, [만무방]에서는 소작농이 추수를 해도 도지 내고 빚값이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자기가 가꾼 벼를 도둑질하지를 않나, [금파는 콩밭]에서는 노다지가 나온다고 하며 멀쩡한 콩밭을 갈아엎지를 않나, 하여튼 김유정의 소설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상천외의 삶의 양태를 보여주어 독자로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한다.

여기서 다루려는 [산골 나그네]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무대는 깊은 산골, 주막이다. 주막이라고 해 보았자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을 리 만무하고 기껏해야 아래 동리 사람들이 막걸리 잔이나 비우러 오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도 농사가 시원치 않으니 손님이 끊어진지 오래다. 이 집은 아들과 홀어미가 살면서 가난한 삶을 이 술막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한 겨울은 닥쳐오고 있는데, 술집에는 손님이 얼씬도 하지 않고,

빛만 자꾸 늘어갈 뿐, 당장 먹을 양식도 떨어
져가는 판이다.

이때 한 여자 손님이 찾아든다. 손님이 아니
라 여자 거지라 해야 마땅할 정도로 남루 그
대로의 젊은 여인이다. 이 여인은 울 데 갈 데
없는 처지인지 하루 밤을 묵었는데도 갈 생각
을 안 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때부터 술
손님이 밀어닥치기 시작한다. 이웃 마을에 갈
보가 왔다는 소문이 퍼져 술집이 붐비기 시작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난처하기는 하나 손님
이 밀려드는 것만 신이나 간청하듯이 그 여인
을 술청으로 내 보낸다. 여인은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거친 남자들의 술시중을 들어준다.
어미는 돈이 벌리니 너무나 좋아 입을 다물
줄 모르고...

어미는 여기서 더 욕심을 내서 총각 귀신으
로 늘어갈지도 모르는 아들과 짝을 맞추어 줄
계산까지 한다. 호박이 Ning클째 굴러 들어온 셈
이요, 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격이다. 아들
덕이도 그 여인을 좋아하는 눈치다. 게다가 어
미가 어렵게 말을 꺼내야 하는데, 어느 날 외
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덕이가 나서서 결혼하
자고 여인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둘은 맺어지게 된다. 혼인을 하게 되고
없는 돈에 조출하나마 잔치까지 벌리고 옷도
새 입성으로 맞춰 입고..., 신혼의 단꿈은 무르
익어만 간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신랑이 자다가 잠에
서 깨어 보니 옆자리가 허전하다. 뒷간에라도
갔나 귀기울여 보니 인기척이 없다. 아빨사!
머리맡에 벗어 놓은, 아끼느라 잘 입지도 않았
던 자기의 새 입성이 없어졌다. 여인이 들고
달아나 버린 것이다.

한편 여인은 자기 옷을 꿰입고 덕이의 옷가
지 챙겨 밤길을 더듬어 아랫마을 물방아 간으
로 달려간다. 거기에는 한 겨울인데도 훌적삼
에 덜덜 떨고 있는 거지꼴을 한 그녀의 남편

이 그녀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남편은 병
든 몸이다.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는 불쌍한 처
지다. 여인은 흠쳐온 옷을 입힌다. 병자는 옷
이 크다고 투덜거린다. 뒤에서는 덕이와 그 어
미가 관솔불을 들고 이들을 뒤쫓는다. 지팡이
에 의지한 남편과 가련한 아내, 절뚝거리는 남
편을 부축하며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다.

몸을 팔아서라도 병든 남편을 살려야 하는
가련한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의리 있는 여
인이다. 비록 몸은 일시적으로 덕이에게 허락
하고 속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병든 남편을 살
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눈물겨운 일
이다. 반윤리를 행하면서도 남편과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그녀의 신의가 눈물겹다.

김유정 소설에는 유일하게 들병이가 등장한
다. 강원도 산골 출신인 김유정은 염상섭과 같
은 서울의 매당집이 아닌 여기저기 술병을 들
고 산골 마을을 찾아 떠도는 들병이를 소설에
등장시켰다. [아내]에서도 남주인공은 들병이
로 나서겠다는 못생긴 아내를 들병이로 키우
기 위해(?) 창을 가르친다. 신식 창가를 알지
못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한
다. 아내를 술집 작부로 내보내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소설에서 해학적으로 처리되었다. 삶을
위해 윤리를 서슴없이 포기하는 당시의 소작
농들의 생존의 처절함을 웃음으로 눈물겹게
처리한 그의 솜씨가 단연 일품이다.

6. 맺음말

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음식이다. 이 술은 동서고금을 막
론하고 귀중한 음식으로 대우받았다. 음식 중
에 가장 귀한 음식이라면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정수만
거둔 음식이 술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이
귀중한 음식이 장소와 경우에 따라 천하거나

방탕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호방하거나, 기독교에서처럼 최후의 만찬에 죽음의 상징으로 쓰이거나 한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기적을 행한 가나의 기적도 물을 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술은 그 자체가 나쁘거나 타락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다. 귀중한 음식, 그것이 문학에서도 귀중한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다.

Fill ev'ry glass, for wine inspires us,

Ane fires us

With courage, love and joy.

Women and wine should life employ.

Is there aught else on earth desirous?

모든 잔을 가득 채워라, 술은 우리를 분발시키고 용기와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불태우나니 여자와 술은 인생의 동반자이다. 이 세상에서 이것 이외에 바랄 것이 무어냐?

- John Gay -

唐詩 감상 / 王維의 詩

송 별

말에서 내려 술을 권하며
『어디로 가려는가』 그대에게 묻노니
『세상일 모두 뜻 같지 않아
南山에 돌아가 누우려 하네』.

『여러 말 말고 그저 떠나게
거기는 언제나 흰 구름 있으려니』

送別

下馬勸君酒
問君何所之
君言不得意
歸臥南山陲
但去莫復問
白雲無盡時